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6주일
 제27권 11호 (다해) 2007·2·11

[묵상]



그 소리

서걱서걱 서늘하고 차갑게
 사분사분 훈훈하고 향그럽게
 나뭇가지 꼭대기부터 흔들리고
 풀잎들이 엮드리며 몸 부비는
 그 소리 알아듣고 우리도
 몸 부비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명회 (장애시 연락처) : (213)458-0396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교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백삼위 신앙학교(3단계)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이야기 성서반 예비자 교리반(2월14일 개강)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이야기 성서반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복사단 모임 (첫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5:00
주일	영어권 Bible Study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10:30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유철희 바오로 (310)320-3697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미사	(연) 변석환, 이완호 요셉 (생) 방수형 치릴로, 윤춘의 스킨라스티카 박민환 미카엘, 신우용 안토니오, 문금희 & 순희 가정 김풍길 바오로 & 재희 모니카 가정
주일 학생미사	(생) 임민우 아우구스티노, 임은영 올리비아, & 민선 올리안나
주일 낮 미사	(연) 김찬배 파스칼, 지정남 모니카, 김시형 시릴로, 박마리아 김상돈, 민요한과 마리아, 박창민 바오로와 안희녀 수산나 김인석 바오로, 테니스웨버,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생) 최현영 스테파노, 엄유진 토마스, 이중민 요셉 홍주희 안나, 임종택 베르나르도, 정성 베드도 김종렬 베드로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레미야 17,5-8
화답송	◎야훼님께 그 믿음을 두는 사람 복되도다. <전례성가 78, 연중 제6주일 C해> ○복된 사람이여, 불신자들이 꾀하는 말을 그는 아니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망나니들 모임에 자리하지 않나니.◎ ○차라리 그의 낙은 야훼의 법에 있어 밤낮으로 주님의 법 묵상하도다. 마치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인양 제때에 열매지고 잎이 아니 시들어 그 하는 일마다 잘되어 가도다.◎ ○불신자는 이렇지 않나니 이렇지 않나니,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도다. 주께서 의인의 길을 살피 주심이로다. 불신자의 길은 망할 것임이로다.◎
제 2독서	1코린토서 15,12.16-20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복음	루카 6,17.20-26
영성체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음이로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도다.

오늘의 성가

	토요특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 ~ 58	33 ~ 42
입당	175	176
봉헌	270	257, 261
성체	아버지	305, 289
파견	245	228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Sacrosanctum Concilium)

제3장 다른 성사와 준성사

세례 준비기

64. 여러 단단계로 나뉘어 있는 어른들의 세례 준비기를 복구시켜, 지역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절한 교리교육을 위하여 지정된 세례 준비기의 시간은 계속 이어지는 시기에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들로 성화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례 예식의 개정

65. 선교 지역에서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는 것들 외에 각 민족의 관습에서 발견되는 입문식의 요소들도, 그리스도교 예식에 적용될 수 있는 데까지, 이 헌장 제37-40항의 규범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다.

66. 두 가지 어른 세례 예식, 곧 간략한 예식과, 복구된 세례 준비기를 고려한 더 성대한 예식을 모두 개정하여야 한다. 「로마 미사 전례서」에는 ‘세례 수여’ 고유 미사를 수록하여야 한다.

67. 어린이 세례 예식을 개정하여, 어린이들의 실제 상황에 적용시켜야 한다. 부모와 대부모의 역할과 그들의 의무가 예식 자체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68. 세례 예식에서는, 지역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세례 받을 사람이 많을 때에 적용할 예식도 없어서는 안 된다. 또한 특히 선교 지역에서, 교리교사들이 또 일반적으로,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사제나 부제가 없을 때에, 신자들이 쓸 수 있는 짧은 세례 예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69. ‘어린이세례에서 생략된 부분을 보완하는 예식’이라 불리는 예식의 자리에, 간략한 예식으로 세례를 받은 어린이가 이미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더 명백히 더 적절히 드러내는 새로운 예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유효하게 세례를 받고 거룩한 가톨릭으로 회개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교회의 일치 안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새로운 예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70. 세례수는, 부활 시기가 아니라도, 바로 그 세례 예식에서 더 짧은 공인된 양식으로 축복될 수 있다.

◆ 백삼위 전례연구 위원회

교회의 길, 행복 버리기 불행 선택하기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현상으로 행복을 가늠하는데 익숙합니다. 부자가 되면,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직장을 다니면,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으면, 그 밖에도 눈으로 측량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충족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난은 불행일 뿐이며,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며, 명예를 얻지 못하면 주눅이 드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부와 자원의 공정한 분배, 인간 그 자체의 존엄함, 품위 있는 인격, 순수한 명예 등의 고상한 가치는 단순히 말로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의 고발처럼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스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 들의 장난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측량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은 어쩔수 없이 서열을 만들게 됩니다. 서열의 앞뒤자리가 행복과 불행을 가름하게 되고, 다수의 행복을 만들기보다 그 소수의 묶음에 들어가려 애쓴다면, 그것은 결코 현명한 자세도 성숙한 태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모두가 그렇게 외적인 조건을 기준삼아 행복을 놓고 경쟁해야만 소수의 경쟁력 있는 이들의 행복이 강화, 지속될 수 있다는 속셈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님께에서 떠나 있는” 이들에게 오늘 복음의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웃기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 눈에는 가난하고 굶주리며, 울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뿐이며, 부유하고 배부르며, 웃고 좋은 말을 듣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낙오

자의 자기 위로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죽 못났으면 가난하고, 오죽 무능하면 굶주리고, 오죽 변변치 못하면 울고, 오죽 한심하면 모욕을 당하겠느냐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하다 하신 것은 그들을 위로하며 달래거나, 내세의 행복을 약속하며 현실의 고통을 무마하기 위한 속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겪는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백성”에게 삶의 태도와 마음을 바꾸어야 함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소수만의 행복을 지양하고 다수의 행복을 지향한다면 함께 살 길을 찾으라는 촉구입니다. 당신이 가난하고 굶주리는 이들과 빵과 당신의 생명을 나누셨듯이, 우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고 따돌림 받은 이를 보듬어 주셨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불행한 길을 걸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온백성의 큰무리 위에 올라서려 하지 말고 그들과 하나가 되기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세상 한복판에서 참행복을 위해 하느님의 나라를 세워 성장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지 않은 채 자기 몸집 치장하고 불리기에 온 힘을 다한다면, 그것은 현세의 부귀영화를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그렇다면 바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이 되고 말 것입니다.

●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 신수동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최숙 (쿨라라)	이진향 (아네스)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이호미 (엘리사벳)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최태훈 (아우그스틴)	김교복 (레오)	전배형 (베드로)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봉효운 (솔리나)	변혜경 (올리아나)	권순길 (세실리아)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황지영 (안젤아)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 시 1,4반	제물봉헌자			P. V. 1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되도록 일찍 옵시다.

◆ 가정의 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는 계속 봉헌합니다.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합니다.

☞ 지난 주간 합계 : 2,867 ☞ 총 합계 : 85,840

◆ 청년 성서공부 모집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새김으로써, 하느님께 한걸음 다가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성서공부 할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 오늘 주일까지
- 과목 : 창세기 반
- 문의 : 강정현(시몬) 323-899-5581

※ 첫 모임시간에 그룹공부 모임시간을 상의하여 조정합니다.

◆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2학기 개학 을 하였습니다.

- 주일학교 등록비 : 1인당 \$50 (둘째 \$30, 셋째 \$20)
자모회비 \$20 (가족당)
- 한국학교 등록비 : 1인당 \$150
(둘째 \$140, 셋째 \$130)

※ 아직 등록하지 않은 자모들은 오늘 주일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 예비자 교리반 모집

- 2월14일(수), 오후8시, 환영식, 강당
- 이웃에 입교 권면하실 예비신자가 있으신 분들은 입교 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6년 12월17일 신영세자 첫교해

- 2월15일(목) 오후 8시

◆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단

- 신청하신 모든 분들은 순례 비용(\$790)을 오늘 주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지참)
- 납부 : 오전8시30분~오후2시, 사무실
-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신청을 더받게 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신청해주시오.

◆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 2월 21일(수)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성지가지 회수 : 2월18일(주일)까지

◆ 양협회 주최 “이민 생활, 세법 세미나”

- 오늘 주일 오후1시, 강당
- Panelist : 본당 소속 CPA 이재정, 신대식, 채데이빗
- 세금보고 시기를 맞아 세법상식과 변경된 세법에 관한 강의와 개인 상담시간을 마련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설날 합동 위령미사

- 2월 18일(주일)은 한국의 고유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선조들과 친척, 은인들을 기리는 ‘설날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 미사 예물은 2월16일(금)까지 사무실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2월 11일 : P.V. 2반 (육계장 \$3)
- 2월 18일 : 전신자 설날 떡국 나누기
성모회와 토렌스 남1반에서 봉사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기정 김선제 김선희 김옥보 김정은 김중환	성전헌금	김기정 김선제 김선희 김옥보 김정은 김중환		
	김철민 김철웅 김현숙 노혜숙 류인섭 모은기		김철민 김철웅 김현숙 노혜숙 모은기 문은주		
미사헌금	문은주 민상기 민소예 박수익 박정희 박종열	감사헌금	민소예 박수익 박정희 박종열 박준구 박희자		
	박준구 박현주 박희자 배태임 손석조 신경훈		손석조 신경훈 신대식 엄혜은 오수인 오진자		
	신대식 엄혜은 오수인 오진자 오태환 윤석구		오태환 윤영훈 윤희동 이근모 이명선 이병호		
	윤영훈 윤희동 이근모 이명선 이병호 이연행		이영희 이은록 이정희 이현창 이효세 임 순		
	이영희 이은록 이정희 이현창 이효세 임 순		장영우 정기은 주태청 지경수 최원석		
	장숙환 장영우 정기은 조동욱 주태청 지경수		최원석 최의수 한혁수 영희가보라		
	최성자 최애경 최원석 최의수 한소옥 한혁수		영희가보라 배론청년회 김치판매 수익금 \$350		
	홍석인 황학수 익명 영희가보라		합계 : \$2,800		
	합계 : \$4,110		특별헌금	김대우 엄혜은	
	\$2,614.10		2차헌금	\$1,193	김크리스티나 & 베드로 홍주희

◆ 꽃동네 제1차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피정

- 3월6일(화)~7일(수)
- 대상 : 60세 이상
- Temecula 꽃동네 피정의 집
37885 HWY, 79 S., Temecula, CA 92592
- 신청문의 : (951)302-3400, 303-0421

◆ 성령안에 성장 세미나

- 주제 :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1테살 5,19)
- 3월13일(화)~17일(토), 오후 6시30분~10시
18(주일), 오후 3시~오후 7시
- 성 프란치스코 성당 2040 W. Artesia Blvd., Torrance
- 대상 : 신앙 성장을 바라는 모든 교우
- 참가비 : \$20 ● 지참물 : 기도공동체 성가
- 강사 : 김찬용 베드로 신부, 대전교구 성령봉사회 지도신부
- 주관 :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 후원 : 남가주 사제 협의회, 남가주 평신 협의회

◆ 청소년 직업갯기 프로그램

- 소개 : 취업준비-이력서쓰기, 인터뷰 요령, 상담 & 멘토링
- 대상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있는 18세~34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장있는 청소년
- 장소 : Asian-American Job Training Center
재미한인 직업 교육 센터
680 Wilshire Pl. #414, L.A., CA 90005
- 연락처 : Jenny Shin (213)480-1282

사람을 구합니다.

❖ Student Aid 구함 ❖

- 분야 : P. V. School District Student Aid 2명
- 자격 : Bilingual (English/Korean) Reading & Writing
- Interview 장소 : P.V. School District/Human Resource
3801 Via La Selva, P.V.E., CA 90274
Application 지참
- 문의 : 김마리나 (310)548-8427, (310)987-1462

❖ Bon Bon Island ❖

- 분야 : Candy Store, Part-time Cashier, P. V. Mall
- 자격 : 영어하실 수 있는 분
- 연락처 : (310)541-3906

이번 주 단체 모임

각 단체 모임	오후 1시, 각 교실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소공동체 부장		김순희 모니카 (310)328-1817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렌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3	정정숙 레아 791-5696	정정숙 레아 791-5696 2/23(금) 오후 7시30분
	4	권본경 율리아 834-2831	형제반 1계 수 오후7시, 성당 자매반 2/21(수) 오후7시, 성당
토렌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김유숙 헬레나 214-0069 2/25(주일) 오후5시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4	이은록 요셉 999-5677	이은록 요셉 999-5677
토렌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박정자 세실리아 527-7471	박정자 세실리아 527-7471
	2	임진희 한나 720-7898	임진희 한나 720-7898
	3	장주람 마리아 486-1982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렌스 북 권순길 세실리아 365-2183	1	권병연 리디아 (소공동체 차장) 938-3255	권병연 리디아 938-3255
	2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4		
하버 칼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 차장) 808-5005	1	최경애 프란체스카 326-6587	조소영 수산나 891-0314 오늘 주일 오후5시
	2	김희복 아데스 326-2283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370-6589
	4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클라라 544-6290	
	2	김명재 아가다 541-3687	
	3	진애경 율리아나 541-5370	
	4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5		

신앙학교 공부를 하면서

맨 처음 천지는 하느님 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영의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산, 바다, 나무, 꽃, 어디서나 하느님 영의 그림자를 목상해 봅니다.
 파란바다와 파란하늘이 맞닿는 수평선,
 태고적같이 사람의 흔적이 없던 겨울바다 - 포르투갈 라고스,
 자연은 우리의 영이 하느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편안하게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반기신다. (이사야서 62,6)
 나의 영이 하느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더없이 순수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럽고, 평화로우며,
 아름다운 천상 행복에 푹 잠기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NADA의 길 [십자가의 성 요한의 길] 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 속에서만 살지 않고 각박한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상 행복은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내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탄은 계속해서 내안에서 꼬드기는 말을 속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하던 사탄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당하는 나의 십자가의 고통을
 연옥영혼 구원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해봅니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연옥영혼을 한평 더 구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하소서.

성경읽기 계획표 따라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역사 속에
 한분이신 하느님만 섬기던 사람들은 많은 축복을 받고
 우상숭배를 하던 자들은 멸망하는 하느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골로새 3,5)
 우리는 늘 하느님의 축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느님께 사랑받는 저희되기를 기도드립니다.